

顯隆園의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에서 正祖의 역할

김 동 욱

(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우 희 중

(경기대 대학원 석사과정)

주제어 : 풍수, 병풍석, 정자각, 수라간, 수복방

1. 서론

현릉원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이다. 본래 사도세자의 묘소는 서울 동쪽 배봉산 아래¹⁾ 있었는데 정조는 재위 13년 되던 해인 1789년에 묘소를 당시 조선 최고의 길지 중 하나로 꼽히던 수원읍 뒷산으로 옮기도록 하고 묘소의 명칭을 永祐園에서 顯隆園으로 고치도록 했다. 현릉원을 수원읍 뒷산으로 옮기는 일을 입안하고 터를 고르고 묘소의 형태를 결정하는 일에서 정조는 단순히 국왕으로써 일을 명령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살피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

이 글은 현릉원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에 정조가 했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문헌을 통해 밝히고 그 결과 나타난 현릉원의 특징은 무엇이며 현릉원 조성

에서 정조가 한 원침계획자로서의 역할이 갖는 의미를 새겨보려는 것이다.

정조는 조선의 역대 군주 중에서도 드물게 고급의 방대한 서적을 읽고 학문을 탐구하고 많은 글을 남겼다. 각종 토목 공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과 조예를 지니고 있어서 중국에서 사들인 기술 서적에서 들을 들어올리는 원리를 파악하여 화성 축성에서 이를 실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²⁾

정조에 대해서는 18세기 개혁군주 또는 문예부흥 군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다룬 많은 연구축적이 있으며 정조의 명에 의해 이루어진 화성축성의 기술적 성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³⁾ 그러나 현릉원 조성에서 정조 자신

2) 거중기를 실제 고안한 사람은 정약용이었지만 정약용에게 거중기를 고안하도록 명한 것은 정조였다. 정조는 중국을 통해 입수한 서양의 기술서적에서 인종과 거중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 이점을 살려 자재를 운반하는 도구를 고안하도록 정약용에게 지시하였다.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수원성』, 도서출판 발언, 1996. 105쪽 참조).

3) 정조에 대한 최근의 논저로는 정옥자, 『정조의 수상록 일독록연구』, (일조각, 2000),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01),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01-2007-000-20464-0)

1) 현재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이며 서울시립대학교 뒷산에 해당된다.

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다룬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⁴⁾ 그런 점에서 현릉원의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에서 정조가 했던 역할을 밝히는 것은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역과 관련한 정조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조의 세심한 배려에 의해 조성된 현릉원의 능침상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전개는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 외에 『정조실록』이나 『일성록』 등 연대기적 사료와 『현릉원원소도감의궤』 등 현릉원 조성 당시의 문헌자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며 1장에서는 현릉원 입지선정 및 좌향 문제, 2장에서는 석물조성과 정자각 등의 계획문제를 다루고 3장에서 현릉원의 원침상의 특징을 논하고 4장에서 정조의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이 갖는 의의를 다루기로 한다.

2. 현릉원의 입지선정과 坐向 및 穴의 결정

무덤 조성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무덤이 들어설 위치를 고르는 것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坐向과 봉분을 앉히는 穴자리 선정일 것이다. 현릉원 조성을 위해서 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입지선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좌향에 대해서도 여러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 문헌들을 섭렵하였다.

2007)외에 유봉학, 『정조의 화성건설과 산업진흥책』(경기지역과 실학사상, 1999) 등이 있다.

4) 현릉원조성에 대한 논저로는 김지영, 「1789년 현릉원천원과 현릉원원소도감의궤」(『현릉원원소도감의궤역주』, 경기도박물관, 2006)이 있다. 현릉원의 풍수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저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입지 선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저는 보이지 않는다.

2-1. 천장의 결정과 입지선정

사료상으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길 것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영조의 사위였던 朴命源이었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11년 7월 11일 박명원은 왕에게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배봉산 아래 묘소가 莎草가 마르고 청룡이 얇고 물기가 가득하고 風氣가 불순한 등 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묘소를 옮겨 神道를 편안히 할 것을 청하였다. 상소를 접한 왕은 바로 시임대신, 원임대신, 각신, 2품 이상 종친 등 조정의 거의 모든 대신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신하들이 한결 같이 묘소를 옮기는데 찬동을 하자 왕은 그 자리에서 올해가 年運, 山運, 園所本命運이 모두 上吉인 해라고 하면서 올해 천장을 하되 옮기는 장소로는 수원읍내가 좋겠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왕의 말을 들은 대신들은 일제히 찬성의 뜻을 표하였다.

위 내용은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다른 정조대 연대기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명원의 상소가 올라오자마자 왕이 대신들을 불러 모아 상소문을 낭독하게 하고 묘소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뿐 아니라 옮길 장소까지 왕이 직접 수원읍내로 거론을 하여 대신들의 찬동을 얻어낸 점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사도세자 묘소 옮기는 문제를 준비하고 옮길 장소를 면밀히 물색해 놓았음을 말해주며 박명원의 상소는 단지 대신들의 찬동을 이끌어내어 일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왕은 대신들에게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묘소자리에 대해, 장단 백학산 아래, 광릉 좌우 언덕, 용인, 현릉 국내 금수동, 후릉 국내 두 곳, 강릉 백호변, 가평, 수원 등 여덟 곳에 대해 열거하고 나서,

“나라 안에 능침 자리로 봉표해 둔 곳 중에 세 곳이 가장 길지라는 설은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한 곳은 흥제동으로 바로 지금의 영릉(효종의 능)이 그곳이고, 한 곳은 건원릉 오른쪽 능선으로 바로 지금의 원릉(영조의 능)이 그곳이고, 한 곳이 바로 수원읍이다. 수원의 뒷자리에 대한 논의는 기해년(1659, 효종 10) 「영릉의궤」에 실려 있는 윤강·유계·윤선도 등 여러 사람과 홍여박·반호의 등 술사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말은 윤강의 장계, 윤선도의 문집에 실려 있는 「산릉의」와 총호사에게 보낸 편지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 내가 수원에 뜻을 둔 지 오래되어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 옥룡자(도선국사)의 평이 윤선도의 문집에 실려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서린 용이 구슬을 희롱하는 형국이니 참으로 복룡의 대지이며, 龍穴과 沙水가 더없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 리에 다시 없고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자리이다.’”

고 하면서 ‘나는 이미 수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지금 경들의 생각과 말을 대하니 이것은 하늘이 은밀히 마련한 것이며 신명이 묵묵하게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천장을 확정하였다.⁵⁾ 이어서 같은 날 천장과 원소조성을 총괄할 도감을 설치하고 일을 총괄할 총호사에 영의정 김익을 임명하였다.⁶⁾

천장이 결정되자 무덤을 옮길 후보지인 수원읍에 대해서 도감의 당상은 물론이고 원로대신들이 직접 가서 살펴보고 올 것을 명하였다. 7월 13일, 수원읍을 다녀온 도감당상 등 대신들은 한 결 같이 수원읍이 묘소로 크게 길한 곳이며 모든 地師들이 찬양을 금치 않았다고 아뢰었다. 대신들의 보고를 들은 왕은, ‘내가 수십 년 동안 情理를 지극히 하고 애써 왔던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수원의 형국을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밤낮으로 상상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헤아려 댄에는 완전하고도 완전한 곳이라 생각해 왔는데, 지금 경들의 말을 내가 생각했던 바와 비교해보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이를 수 있다’고 답하고⁷⁾ 천장할 곳으로 수원읍내를 확정하였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생각은 이미 정조 즉위직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⁸⁾ 그러나 정조는 이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14년 동안 주변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 사이에 정조는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묘자리에 대한 여러 문헌들을 직접 섭렵하고 수원읍내를 골라 천장할 곳으로 결정한 것이다.

2-2. 좌향의 결정과 혈의 선정

무덤 옮길 장소가 수원읍내로 결정되자 다음으로 논의대상이 된 것은 무덤의 구체적인 좌향과 혈 자리의 선정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왕은 이미 몇몇 풍수가들을 동원하여 바람직한 좌향과 혈처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다만 좌향에 대해서는 풍수가들 사이에 엇갈린 의견이 있었으며 왕은 스스로 탐구한 풍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여 좌향을 결정하였다.

박명원의 상소가 있었던 7월 11일 오후에 왕은 相地官 성몽룡과 김양직 두 사람을 불러 들었다. 두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수원읍내의 천장 후보지를 살펴보고 좌향에 대한 의견을 왕에게 올린바 있는데, 성몽룡은 이상적인 좌향을 丑坐로 보고 김양직은 癸坐로 주장하였

7) 『일성록』 정조13년 7월13일.

8) 1789년 7월 11일 박명원의 상소 중에 ‘우리 성상께서는 갑오년(1774년 영조50) 처음으로 부친 묘소를 참배한 이후부터 병신년 어극(1776년 정조즉위년)한 뒤에까지 원소의 안부를 염려하였으며--신은 병신년 초기에 연석에서 천봉하자는 논의가 발단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5) 『일성록』 정조13년 7월11일.

6) 『정조실록』 권27 정조13년 7월을미. 뒤에 김익을 해임하고 좌의정 체제공을 총호사로 삼았다.

다. 두 사람의 견해차는 破 즉, 묘자리 전면의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의 문제로 압축되며 성몽룡은 축좌에 丙破를, 김양직은 계좌에 午破를 주장한 것이다. 축좌병파란 봉분을 축좌에 앉히게 되면 앞쪽의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이 병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계좌오파는 봉분이 계좌가 되면 물 흘러나가는 방향은 오방이 된다는 주장이다. 두 지사는 임금 앞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김양직은 그 자신이 혈 아래 몇 보 떨어진 곳에서 60여년을 살아왔으며 혈자리는 계좌정향에 오방으로 파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하면 묘자리가 평탄한 것이 마치 요와 자리를 깬 듯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견해차에 대해 왕은 수원읍내 좌향의 논의는 이미 「기해의궤」(1659년 효종의 무덤을 쓴 해를 가리킴)에도 실려 있으며 이 때 논란이 된 것은 계좌정향을 이상적으로 하되 묘자리를 조금 올리느냐 내리느냐하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성몽룡이 지나치게 九星論(하늘의 아홉 별자리를 지상의 산세로 파악하는 논법)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 왕은 그 자신 풍수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하여 성몽룡의 주장이 갖는 결점을 말하였다. 아울러 “신해년(1671년 영릉을 여주로 옮긴 해)의궤와 옛사람의 글을 보면 이미 정해둔 혈이 있으니 혈은 조금 낮게 할 것이고 향은 구슬 같은 봉오리를 마주하도록 할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만 왕은 이날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대신들과 상지관들에게 바로 다음날 수원 현지를 가서 살펴보고 다시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지를 다녀온 대신들과 상지관들은 7월 13일 왕 앞에 나아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모두 김양직의 주장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신들의 말을 모두 들은 왕은 최종적으로 무덤

의 좌향을 계좌정향으로 결정하였다.

묘자리가 확정되고 좌향이 정해지자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혈의 위치를 찾는 일이었다. 수원읍내를 살피러 내려간 김양직은 서울로 돌아가고 동부승지와 함께 수원에 머물면서 혈자리를 면밀히 살폈으며 그 결과는 7월 15일에 왕에게 보고 되었다. 보고를 접한 왕은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혈의 위치 즉 봉분을 설치할 위치를 확정하였는데, 그 위치는 신해년의 의궤에서 언급한 곳과 일치하는 곳으로 계좌정향에 약간 낮은 곳이 되었다.

혈을 정하는 일까지 결정되자 천원 공역은 일정에 따라 착착 진행되었다. 공역 개시는 7월 20일이었으며 이 날 封標 즉 혈자리를 표시하고 7월 26일에는 后土神에게 제사지내고 풀 뽑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왕이 가장 근심한 것은 과연 定穴한 곳의 토질이 아무 이상이 없는 곳인가 하는 점이었다. 땅 속의 일은 땅을 파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므로 왕으로써는 이 점이 가장 걱정되는 일이었던 셈이며 이것은 혈자리를 지정했던 지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혈처를 파내는 일은 다른 공사 일정에 맞추어 시일을 기다려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으며 이 사이에 왕은 대신들이나 다른 상지관을 불러 봉표처의 토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묻는 등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드디어 9월 2일에 와서 봉표한 곳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하였는데 1자를 팠으나 낙엽 등이 쌓여서 이루어진 浮土만 나오고 2자 가까이 파도 眞土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토가 계속 나오자 현지에서도 봉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소란이 있었으며 보고를 들은 왕은, ‘어찌 決穴에 부실할 이치가 있겠는가’고 말하여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흙을 더 파기를 재촉하였다. 드디어 이튿날 저녁이 되

어 진토가 나왔으며 이는 곧바로 왕에게 전달되었다. 흙을 확인한 왕은 크게 기뻐하여 다음날 대신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어젯밤 등불 아래서 분명치 않았으나 아침 개봉해보니 황적색이고 토성이 부드럽고 윤택하였다’고 하며 흙을 대신들에게 보여주고 장계를 가져 온 역참의 장졸에게 후하게 상을 주도록 명하였다. 아울러 혈처가 잘못되었다고 발언을 하여 소란을 일으킨 지사 이명구에게는 엄히 징벌하라고 분부를 내렸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 현릉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왕은 오래전부터 왕실의 묘자리에 대한 문헌들을 섭렵하고 그 자신이 천원의 후보지로 수원읍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좌향과 혈처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에 있었던 논의들을 각종 의례를 통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사들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왕 자신이 파악한 풍수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낸 지사의 의견을 물리쳤다.

3. 현릉원의 원침계획과 정조의 의도

陵이나 園⁹⁾은 기본적으로 봉분을 조성하고 봉분 주변에 각종 석물을 장식하고, 봉분 앞에 정자각을 세우고 그 옆에는 비각을 두고 정자각 앞으로 수라간과 수복방을 세우고 그 앞쪽에 홍살문을 세워 능역의 경계를 이루며, 능역 입구에는 재실을 두어 향을 보관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로 쓴다. 이들 여러 시설 가운데 현릉원 조성에서 정조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석물조성 문제와 정자각 등의 시설 배치 문제이다. 이들 시설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조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9)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을 陵, 왕의 생모나 왕세자의 무덤을 園이라고 칭했으며 능과 원은 설치하는 시설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규모나 석물의 수효에서 차이를 두었다.

3-1. 석물조성

봉분 주변에 설치하는 석물 가운데서 논란이 되는 것은 屏風石과 沙臺石 및 瓦簷裳石의 설치여부이다. 능원의 석물은 조선초기까지는 병풍석을 비롯한 여러 장식재들이 가미되었으나 세조 때부터 장식을 간소하게 하라는 유지를 받들어 치장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는 인조의 長陵을 마지막으로 왕릉에도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난간석 만으로 봉분 주변을 감싸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여건 속에서 정조는 현릉원 조성에서 이전에 하지 않던 병풍석이나 와침상석을 설치하였다.

7월 13일, 묘자리의 좌향을 계좌정향으로 결정하던 자리에서 왕은,

“군자는 천하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부친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지는 않는다는 설¹⁰⁾이 있는데, 참으로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마음 자세로써 최상급의 방법으로 장례를 추진함이다. --, 그러므로 (이번 능침에는)사대석과 병풍석도 모두 만들고자 한다.”¹¹⁾

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다시 8월 16일에 와서 더 구체적인 왕의 유시가 있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각 능의 석물에 대한 제도와 수효를 살펴보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었으나 대체는 같았다. 그런데 병풍석과 난간석을 寧陵 이후로 모두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 검소함을 밝히신 성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해년에 천릉을 하면서는 그전과 다름없이 쓴 전례가 있었으니, 이는 아마도 예전 長陵의 석물을 가져다가 병풍석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에는 극진한 성의를 바치고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10) 『맹자』 「곤손추하」에 나오는 ‘不而天下儉其親’을 말함.

11) 『일성록』 정조13년 7월13일.

천릉할 때에 옛것을 그대로 쓴 전례에 근거하여서 병풍석과 와침상석을 쓰되 난간석은 없이 하려고 하니, 이는 (선왕의)受敎를 따르기 위하여 (난간석을 하는)격식대로는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능력에 나의 본의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이번의 예를 잘못 근거로 삼아 병풍석, 난간석, 와침상석 등의 석물을 쓰게 되면 나부터 수교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병풍석에 관계된 각종 석물은 (앞으로는)일체 다시 쓰지 말고, 이 전교를 호조와 예조의 등록에 상세히 기재한 뒤에 또 장생전의 東正庫에 게시하도록 하라.”¹²⁾

고 하였다. 위 글에서 정조는 7월13일 현릉원에 사대석과 병풍석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뜻을 대신들에게 말한 이후에 역대 왕릉의 석물 제도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위 글에 의하면 비록 영릉(효종능) 이후에 병풍석을 쓰지 말도록 한 선왕의 유지가 있었지만 신해년 천릉(영조7년에 인조의 능을 파주 갈현리로 천장한 것을 말함)에서는 이전하기 전의 능에서 병풍석과 와침상석을 쓴 전례에 따라 이런 석물을 설치한 예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현릉원에서도 병풍석과 와침상석을 쓰기로 하되 난간석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병풍석 같은 석물은 절대 다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미 정조는 7월 19일에 도감당상에게 석재를 채취하는 문제에 대해 물으면서 과거 장릉을 옮길 때는 기존 석물을 그대로 옮겨서 쓴 일이 있지만 이번에는 영우원의 석물이 규모가 작으므로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¹³⁾ 그 후에 왕은 역대 왕릉 석물을 살피고 나서 병풍석과 와침상석을 설치하도록

명을 내린 것이다.

사대석과 병풍석은 봉분 아래 부분에 등글게 돌아가면서 석재로 마감을 하여 봉분의 흠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한편으로 봉분을 치장하는 석재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사료에서는 사대석과 병풍석을 각각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쓰기도하고 사대석으로 통칭해서 쓰기도 하는데,¹⁴⁾ 둘을 구분할 경우, 병풍석은 봉분의 하부 둘레에 꽃이나 식물무늬를 둘을 새긴 면석을 지칭하고 사대석은 봉분을 둘러싼 석재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7월13일의 전교에서 정조는 사대석과 병풍석을 구분해서 두 가지를 다 설치할 것을 말하였지만 8월16일 유시는 사대석이란 명칭 없이 병풍석과 난간석, 와침상석의 설치를 거론하고 있다. 와침상석은 봉분 하부의 지면에 기와를 덮은 처마를 설치한 것 같이 석재로 깔아 놓은 것을 가리킨다.

최종적으로 현릉원에 설치하는 석물에 대해서 정조는 스스로 여러 선례들을 검토하고 나서 ‘병풍석 이외의 석물은 한결같이 光陵의 제도를 따라서’ 혼유석 1좌, 장명등 1좌, 망주석 1쌍, 문무인석 각 1쌍, 양석, 마석, 호석 각 1쌍을 배열하도록 지시하였다.

정조는 이미 수원읍내 천장을 결정한 7월13일에 현릉원의 석물조성을 왕이 신임하던 기술자인 정우태에게 일임하는 명을 내린 바 있다. 정우태는 정조 즉위 직후부터 왕실의 각종 능묘조성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담당했던 인물이며¹⁵⁾ 정조는 그의 능력에 대해 각별한 신임을

14) 성종의 산릉을 조성할 때 도감에서 왕에게 올린 장계에는 사대석을 장식 석물을 총칭한 뜻으로 쓴 사례를 볼 수 있으며(『연산군일기』, 권1 원년정월 을유), 선조31년의 인산 때 예조에서 한 장계에는 병풍석과 사대석을 따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선조실록』, 권131 선조31년 11월 경자).

15) 정우태의 공역활동에 대해서는 김동욱, 「정조순조연간의 관영공사에서 별간역 정우태의 조영활동에 대해서」(『건축역사연구』 52호)참조바람.

12) 『일성록』 정조13년 8월 16일.

13) 『일성록』 정조13년 7월 19일.

보였다. 8월 16일에 왕은 다시 유지를 내려 말하기를,

“근래에 근심스러운 것은, 석물을 배치할 때는 수효와 체계가 있는데 (현릉원은) 석물 뒤에 잔디와 흙이 터럭 한 오라기만큼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깊이 생각하느라고 글을 지어서 유지를 내리지 못하였다. 오늘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고 점검하니 광릉의 석물은 지난 시대의 본보기이지만 매우 편안하고 좋다.

…중략…, 와침상석을 이번에 특별히 사용함은 오로지 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이고 아울러 정성을 다 바친 나의 마음을 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척수를 조금 줄이는 일을 별간역 정우태에게 거둬 당부하였는데 과연 줄인 척수에 의거해서 계산하여 돌을 캐었는가”

고 묻고 도감의 당상과 함께 충분히 토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서 별간역을 맡았던 정우태는 광릉보다 약간 치수를 줄여 현릉원 석물을 조각하였다.¹⁶⁾

이상의 석물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정조는 현릉원의 석물을 당시의 일반적인 능원의 격식을 넘어서 최상급의 치장으로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지녔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대석이나 병풍석은 영릉 이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유시가 있었지만 장릉을 옮기면서 병풍석 등을 설치한 전례를 들어 현릉원 천원에 병풍석 등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신 병풍석과 같은 장식물은 이번 현릉원 이후에는 절대 다시 쓰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3-2. 정자각과 홍살문의 설치

정자각이나 홍살문 및 수복방, 수라간과 같은 건물조성은 통상적으로는 공사를 책임 맡은 도감에서 前例에 따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릉원 조성에서는 혈처의 선정부터 석물조성을 비롯한 세세한 부분까지 처음부터 임금이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도감에서도 감히 재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왕에게 의견을 물어 진행하였다.

정자각 터를 고르는 일은 혈처를 정하고 나서 바로 논의에 들어갔다. 혈처가 결정된 7월 13일, 현지를 다녀온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은 정자각이 들어설 위치에 대한 도감당상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당상은 아직 위치를 정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왕은,

“뫼자리가 평평한데 정자각이 중앙에 자리 잡으면 비록 안산이 가로막히지 않는 다하더라도 마루의 기운이 퍼지지 못하니 형세상 좌우측으로 옮겨야 될듯하다”

고 말하면서 우측은 乾泉의 吉水와 申方의 生起가 발원하여 명당에 모이는 곳이어서 넓게 트여야지 가로 막혀서 안 되는 곳이고 왼편은 地軸方이어서 지형을 따라서 정자각을 짓되 午方으로 破하는 물길을 막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¹⁷⁾ 즉, 당초 뫼자리를 낮은 곳에 정하였으므로 정자각의 위치는 혈처의 중앙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좌측에 세우되 밖으로 나가는 물길을 막지 않는 곳으로 하라는 명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 정조는 이미 뫼자리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정자각은 안산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옆으로 치우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자각이 혈처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됨에 따라 수라간과 수복방의 위치 선정에 약간의 문제가 따랐다. 8월2일 도감당상이 아뢴 글 중에,

“수라간과 수복방은 으레 정자각의 오른 쪽과 왼쪽에 조성하는데, 지금 이 정자각의 터가 혈처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16) 『일성록』 정조13년 8월 16일

17) 『일성록』 정조13년 8월 13일.

있어 수복방을 정자각 왼쪽에 조성하면 바로 혈의 앞 내명당 가운데에 해당하게 되어 보기에 매우 거슬릴 것입니다.”

고 하여 그 결정을 왕에게 청한 대목이 보인다. 여기 대해서 왕은 ‘그렇다면 수복방도 정자각의 오른쪽에 조성하라’고 답하였다. 이에 따라 현릉원에서는 수복방과 수라간이 모두 봉분에서 보아 오른쪽에 나란히 놓이고 봉분의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정자각이나 수라간, 수복방의 위치가 결국 모두 임금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이전의 능원과는 다른 모습이 된 것이다.

홍살문에 대해서도 도감에서는,

“신해등록을 살펴보니 마을 어귀 안팎에는 홍살문, 삼문, 대홍살문을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릅니다.”

고 문자 왕이 답하여 ‘이것은 쓸데없이 걸만 꾸미는 것으로 하루 동안 잠시 설치하는 것이다. 항상 세워두는 것 이외에는 모두 설치하지 않음이 좋다’고 답하였다. 산릉공역을 하게 되면 마을어귀 안과 밖에 대홍살문을 세우고 능역 입구에는 삼문을 세우고 능역 앞에 홍살문을 세웠다. 대홍살문, 삼문은 공역을 마치면 헐고 능역 앞 홍살문만 영구히 세워두는 것인데 정조는 임시로 세우는 대홍살문이나 삼문을 세우지 말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왕의 뜻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8월26일 도감 당상이 아뢰기를,

“...영구히 배설할 홍살문은 간가가 비좁아 대여를 받들고 나아갈 수가 없고 대홍살문은 간가가 넓어서 그대로 만들어 영구히 배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구 안팎 및 좌우의 협홍살문은 설치하지 말고 대홍살문과 영구히 배설할 홍살문은 각각 배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¹⁸⁾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고 하자,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이상 정자각과 수복방·수라간 및 홍살문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시설의 설치 위치에서 도감은 일일이 왕의 뜻을 물었고 왕은 적극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였다. 정자각의 위치나 수라간, 수복방의 배치가 모두 정조의 결정에 의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다만 홍살문의 경우에는 대여를 모시고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정조의 의도에 반하여 대홍살문을 세웠던 것이다.

4. 현릉원의 능침상의 특징

현릉원을 새로 조성하는 작업은 순조로이 진행되어 10월 2일 경에는 봉분과 석물이 완성되고 정자각을 비롯한 주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4일에는 穿壙 즉 묘자리를 파내는 일을 하고 10월 6일 영우원의 옛 원소에서 옮겨온 梓宮을 모신 대여가 도착하여 7일에 玄宮을 안장하는 것으로 일이 끝났다. 정조는 10월 6일 창덕궁을 떠나 이날은 수원부 행궁에서 머물고 다음날인 10월 7일 아침 처음으로 새로 모신 현릉원에 나아갔다. 정조는 정자각 지은 것이나 석물 꾸민 것들을 살펴 본 후에 원소의 뒷산인 화산 봉우리까지 올라가 주변 산세를 살펴보고 매우 만족하여 도감의 당상 등에게 ‘구 원소에 비해 비교적 널찍하고 정교하며 정자각을 조성한 것도 전혀 흠잡을 곳이 없으니, 경들의 노고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치하하였다.

『현릉원원소도감의궤』 「도설」 편에는 완성된 현릉원의 제반 시설들이 그림을 곁들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도설」 편에 나와 있는 현릉원의 시설은 지대석과 병풍석, 와침상석을 둔 봉분과 봉분 주변의 문무인석을 비롯

18) 『일성록』, 정조13년 8월26일



<그림 1> 병풍석, 와침상석, 난간석을 갖춘 파주 장릉의 모습

한 각종 조각물 및 정자각이다. 지대석과 병풍석은 각기 12편의 석재로 구성되며 병풍석 위에는 12개의 만석과 인석이 놓이고 12개의 우와침상석과 24개의 면와침상석이 주변을 이룬다. 봉분 앞에는 석상이 놓이고 장명등, 석호, 석양, 석망주가 쌍으로 놓이고 그 앞으로 문인석, 무인석 한 쌍과 석마 한 쌍이 놓인다. 정자각은 3칸의 正室 남쪽으로 두 칸의 拜廳이 놓여 정자형 지붕을 이룬다.¹⁹⁾ 이들 시설 외에도 비각, 수라간, 수복방, 재실 등이 조성되었는데 이들 나머지 시설은 「도설」 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조성조」 편에서 건물명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비각2칸, 수라간 3칸, 수복방 3칸이다. 한편 재실은 전체를 새로 짓지 않고 구 수원읍의 관청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만 증축하였는데, 어재실은 옛 수원부 동헌인 어묵헌을 전용하고 향대청이나 전사청도 기존 구 수원읍의 관아건물을 활용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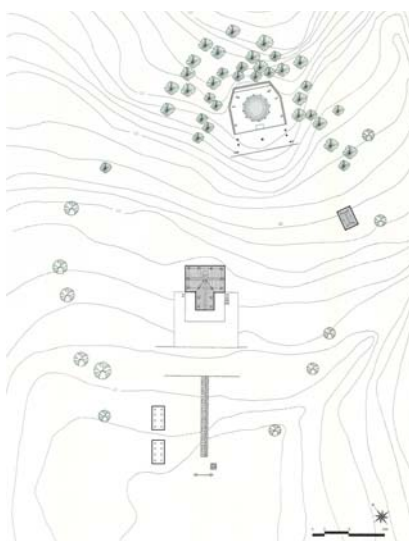
현릉원은 몇 가지 점에서 조선후기 왕릉 중

19) 현릉원의 석물이나 정자각 형태는 지금도 『현릉원 원소도감의궤』 「도설」 편의 설명과 거의 차이가 없다. 현릉원은 조성 이후 정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의 직접 전배하던 곳이며 고종 37년 장헌세자를 장조로 추존한 이후 능호를 용릉으로 고친 이후에도 능의 기본적인 형태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현릉원의 재실은 1791년(정조15)에 와서 전면적으로 다시 지었는데 당초 구 수원읍 관아 건물이 튼튼하지 않아 기울어진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현릉원 등록』).



<그림 2> 용릉(현릉원)의 병풍석과 와침상석 모습



<그림 3> 현릉원의 원침시설 배치 추정 복원도(이창환교수 제작 현황도를 바탕으로 수라간, 수복방 위치를 삽입)

에 특별한 모습을 보인다. 하나는 그것이 왕실에서 전하는 3대 길지의 한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식자들이 말하는 3대 길지는 여주 영릉, 건원릉 동쪽의 원릉 자리와 수원읍이었는데 두 곳은 이미 능이 들어섰고 마지막 남은 한 곳을 현릉원이 차지한 셈이다. 3대 길지 중 두 곳이 조선후기에 비교적 장기간 국왕으로 있었던 효종과 영조의 능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나머지 한 곳을 왕세자에 지나

지 않았던 사도세자의 묘소로 삼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비록 왕세자의 신분이었지만 부친의 묘소를 최고의 길지에 모시려는 정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둘째는 현릉원의 석물이 17세기 이후 능원에서 금하고 있던 병풍석을 설치하여 치장한 점이다. 병풍석은 인조의 장릉 이후에는 설치하지 말도록 유지를 내린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이며 실제로 현종 이후 철종까지 현존하는 역대 왕릉에서 병풍석을 설치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간단한 난간석 만으로 꾸며져 있다.²¹⁾ 17세기 중반 즉 인조 장릉 이후 능이나 원 중에 병풍석을 갖춘 곳은 현릉원이 유일한 셈이다. 와침상석 역시 17세기 중반 이후 다른 왕릉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정자각이나 수라간, 수복방의 배치에서 이전의 왕릉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 점이다. 정자각은 봉분의 정남향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며 특별한 경우 봉분의 정남향을 벗어난 경우가 있다. 현재 남한지역에 남아있는 왕릉(왕후 포함) 40기 가운데 정자각이 봉분의 정남향에 놓이지 않는 사례는 모두 7건이 있다. 그 가운데 5건은 왕과 왕비의 무덤 사이에 간격이 생겨 두 무덤의 중간에 정자각을 설치한 것인데, 현릉, 광릉, 창릉, 선릉, 덕릉이 그 예이다. 영월의 장릉은 정자각이 봉분과 거의 9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봉분을 그대로 두고 후대에 단종을 추존하고 나서 능을 확장하면서 지형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성한 사례이다.²²⁾ 이상의 7건을 제외하

고는 정자각이 봉분의 정남향에 놓이지 않은 것은 현릉원이 유일하다.

한편 수라간과 수복방이 정자각 아래 좌우에 놓이지 않고 두 건물이 한쪽에 배치된 것도 통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현릉원 조성 당시 수라간과 수복방은 정자각의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1815년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이 죽고 현릉원에 합장할 때의 일을 기록한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의 「帷門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홍살문 안 넓은 마당 왼쪽에 두 건물이 나란히 배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수라간이고 또 하나는 수복방이다.²³⁾

현릉원의 정자각이 봉분의 오른쪽에 치우쳐 놓이고 수라간과 수복방이 한쪽 편에 나란히 놓인 배경에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혈자리를 지형 상 낮은 곳으로 잡으면서 봉분에서 안산의 조망을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의 결과였다. 수라간과 수복방의 경우에도 수복방을 좌우에 두었을 경우 안산의 조망을 가리게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모두 오른쪽에 배치하였다.

5. 현릉원 조성에서 정조의 역할과 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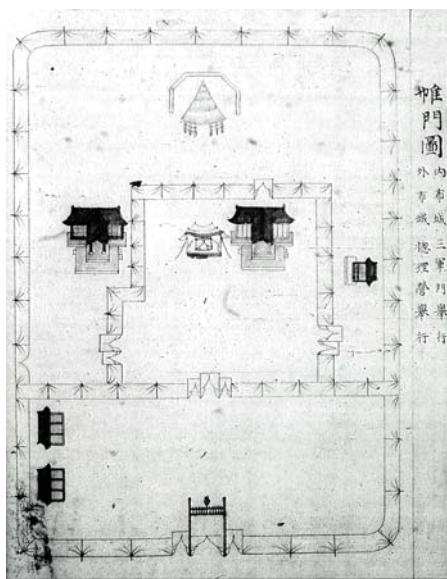
현릉원이 조선 3대 길지 중 하나에 조성된 것이나 이전 왕릉에서 쓰지 않던 병풍석이나 와침상석을 치장한 것은 전적으로 정조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현릉원에서처럼 국왕이 산릉구역에

21) 조선시대 왕릉의 석물을 조사하여 일람표로 작성한 殷光俊, 『朝鮮王陵石物誌』 상(민속원, 1985) 조선역대 왕(후)릉 석물조건표에서도 인조 장릉 이후 병풍석을 사용한 사례는 나와 있지 않고 20세기 초에 와서 흥릉과 유릉에서 병풍석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이 표에서는 현릉원에도 병풍석이 없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확인을 요한다.

22) 『장릉도감의궤』 참조.

23) 수라간과 수복방의 배치 사례는 18세기 산릉의궤에서는 확인이 어렵고 유문도가 나타나는 1800년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부터 가능하다. 이 가운데 수라간과 수복방이 한쪽에 나란히 배열된 사례는 1821년 『정조건릉천봉산릉도감의궤』, 1822년 『현목수빈회경원원소도감의궤』, 1834년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 1834년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이며, 나머지 산릉의궤에서는 모두 수복방과 수라간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19세기초 현릉원의 배치모습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 조성소)

직접적으로 간여하여 입지선정을 정하거나 원침계획에까지 손을 대는 경우는 적어도 17세기 후반 이후 산릉조성에서는 예외적인 특별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산릉공역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내용은 산릉도감의궤나 일성록 같은 1차적인 직접사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현존하는 17세기 중반 이후 각종 산릉도감의궤를 살펴보다라도 국왕이 입지선정에서 석물조성에까지 직접 간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²⁴⁾ 대개의 경우, 입지나 석물조성 등의 일은 산릉도감이 일을 판단하여 왕에게 내용을 아뢰고 왕은 이를 허락하는 것이 관례였다. 보통 국왕이 승하하고 왕세자가 뒤를 이어 즉위하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산릉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은 喪主人 왕세자가 주관하지 않고 국장도감이나

24) 산릉도감의궤는 현재 17세기 이후의 것이 약 90종 정도가 규장각,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입지선정이나 석물조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사료로 정조 이전의 의궤는 효종의 산릉도감의궤를 비롯한 약 14종이 있다. 각 의궤의 전교 편에는 왕릉의 입지나 석물조성에 대한 도감의 의견이 나와있는데 대개의 경우 왕은 도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산릉도감의 책임자가 일을 맡는다. 나중에 새 왕이 즉위한 후에도 선왕의 산릉조성 문제는 이미 큰 틀이 정해진 뒤이기 때문에 왕이 이를 바꾸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국왕 재위 중에 왕대비나 왕비의 상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왕대비는 대개 선왕 무덤에 합장하게 되므로 특별한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왕비의 경우에 뒤에 국왕이 여기에 합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비와 합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왕이 크게 신경을 쓴다고 보기 어렵다.

정조 자신도 현릉원 이전에는 거의 산릉공역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조는 현릉원 조성을 하기 전에 이미 세 차례의 능원 조성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즉위 직후인 1776년(정조즉위년) 선왕 영조의 산릉공역이었고 두 번째는 1779년(정조3년) 후궁이었던 인숙원빈 홍씨의 묘소인 仁明園 조성, 세 번째는 1786년(정조10년) 만아들인 문효세자의 묘소를 꾸민 孝昌園 조성이었다. 이 세 번의 산릉에서 왕은 특별한 주장이나 의견 없이 공역을 책임 맡은 도감의 의견을 좇아 그대로 승인해주는 역할만 하였다.²⁵⁾ 다만 효창원 조성 때는 묘후보지로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康陵 주변과 서울 栗木洞(지금 효창공원 지역) 두 위치를 두고 상지관 사이에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을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최종적으로는 강릉 오른쪽 언덕을 제안한 도감의 뜻을 거부하고 울목동으로 터를 결정한 적이 있다.²⁶⁾ 강릉 주변이 거리가 멀어 왕이 직접 찾아가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울목동을 묘터로 삼은 것이다.

이런 관행과 견주어 볼 때 현릉원에서 보인

25) 『(영조)산릉도감의궤』, 『인숙원빈궁묘소도감의궤』,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의 「전교」 참조

26)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계사질.

정조의 관심과 간여는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왕실에서 전하는 산릉터에 대한 과거의 논의를 두루 살피고 수원읍에 대해서는 ‘뜻을 둔 지 오래되어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왕 스스로 오래 뜻을 두었다가 이 때에 와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실제 현릉원이 완성되어 왕 스스로 현릉원 참배를 하기 전까지 수원 땅을 직접 가볼 기회는 없었다.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듯이, 왕은 ‘수원 땅을 내가 비록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몇 년간의 경영으로 어찌 대략 짐작하지 않겠는가’고 하여 오랜 기간 문헌 등을 통해서 이 일을 스스로 구상하고 머릿속에서 현장의 상황을 그리면서 일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현릉원 전장이 정조의 오랜 숙원이었던 점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였지만 상지관들의 상반된 주장 등을 경험하면서 왕 자신이 풍수에 대해 깊게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홍재전서』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나는 본래 참여가의 학문에 어두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다. 갑오년(1774년으로 영조의 산릉을 조성한 해) 능원에 성묘를 한 뒤로부터 은근히 뉘우치는 뜻이 있어 처음에는 옛 사람들의 지리를 논한 여러 가지 책을 취하여 전심으로 연구하여 그 종지를 얻은 듯하였다. --(중략)--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갖지 못하여 세속의 地師로서 안목이 있는 자를 널리 불러 그 사람의 조예를 시험해 본바 그들의 언론과 지식이 옛 방술에 어긋나지 않았다. 다시 전날 능원(의 지리)를 논한 것을 찾아 살펴보았더니 그들의 논한 바가 상자에 넘칠 정도였다.”²⁷⁾

정조는 즉위 직후 선왕 영조의 묘소를 참배할 때만해도 풍수에 관심이 없었던 듯하였으나

27) 『홍재전서』 57권, 잡저4.

그 후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당대 이름난 지사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이론을 듣고 또 역대 능원에 대한 평가 등을 널리 탐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현릉원 터에 대한 성몽룡과 김양직의 이론에 대해 정조가 전문적인 이론을 펼치며 반박한 것도 정조가 이 방면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조는 선대의 여러 문헌을 섭렵하여 석물의 특징이나 차이점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릉원의 석물조성에서 영릉의 선례를 따라 병풍석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전체 묘제는 광릉의 사례를 따르도록 한 것은 선대의 묘제 특징을 충분히 파악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조는 각종 공역에도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지닌 왕이었다. 정조는 왕세손 시절 경희궁에 머물면서 「경희궁지」를 지어 궁궐의 각 전각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즉위하고 나서 초기 6, 7년 동안에 창덕궁 안에 주합루, 규장각을 세우고 인정전 앞뜰에 품계석을 세우도록 하고 중회당을 세우고 수강재를 건립하여 창덕궁의 공간구조를 크게 바꾼 바 있다.²⁸⁾ 일반 공역에도 남다른 조예를 보며, 안양교 석교에 대해서 ‘안양교를 처음 설치할 때 나는 이미 견고하게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뒷받침이 깊지 못하고’라고 적었다.²⁹⁾ 현릉원 천원에 대비하여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할 때에도 정조는 자신이 배다리에 관한 옛 문헌을 섭렵하고 일을 맡은 도감당상에게 배다리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시하였으며,³⁰⁾ 화성축성에서는 기초공사나 축성방법에 대해서도 의견

28) 정조의 창덕궁 건물조영에 대해서는 김동욱, 「조선 정조조의 창덕궁 건물구성의 변화」(『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호, 1996. 10)를 참조바람.

29) 『홍재전서』 권169 「일득록15」.

30) 『홍재전서』 권59 「잡저6」, 주교지남.

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사들인 『도서집성』의 여러 책 중에서 거중, 인증의 원리를 적은 『기기도설』을 읽고 그 책을 정약용에게 내려주어 화성축성에서 거중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³¹⁾

이처럼 정조는 스스로 풍수의 이론을 탐구하고 역대 능침제도를 살펴 현릉원을 어느 왕릉에 못지않은 모습으로 만들어냈다. 정자각이나 수라간, 수복방의 배치에서는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 지형여건을 살린 색다른 능원으로 꾸며냈다. 그런 점에서 현릉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특징의 바탕에 정조의 의지와 식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만, 정조는 자신이 공예에 속한 일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에는 경계를 보였다. 신하들이 화성축성에서 인증기를 이용해서 공력을 줄였다는 것을 왕의 문집에 신기를 청하자 ‘화성의 축성 공사에 돌과 흙을 채취하고 운반하느라 사람의 공력을 많이 소비한다기에 아쉬운 대로 힘을 덜기 위한 자료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구를 우연히 만들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예의 말단에 불과하니 어찌 후세에 남겨 줄만한 것이겠는가’하고 반대하였다.³²⁾ 또 ‘기계는 말단의 일이니 임금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머물러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혀³³⁾ 공예나 기예에 지나치게 관심을 드러내는 일을 꺼렸다.

현릉원이 정조의 적극적인 능원계획에 의해 그 특징이 형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현릉원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정조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릉원에서 시도되었던 병풍석이나 와첨상석은 그 후 19세기에 조성된 다른 능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다.³⁴⁾ 지

형조건에 따라 정자각의 위치를 바꾸었던 유연성도 후대 능원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현릉원에서 시도되었던 몇몇 특징들은 조선의 능제에 변화를 초래하는 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는 현릉원에서 보여주었던 정조의 묘자리에 대한 관심과 능원계획은 일회성의 사건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 결론

현릉원의 입지선정은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길지들을 면밀히 탐구한 정조에 의해 3대 길지 중 마지막 남은 한 곳인 수원읍내로 정해졌다. 봉분의 좌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수원읍내에 대한 옛 문헌을 파악하고 반대의견을 낸 지사를 이론적으로 논박하여 최종 결정을 주도하였다. 석물을 조성하는 데서도 정조는 17세기 중반 이후 제한되었던 병풍석이나 와첨상석을 치장할 역사적 근거를 찾아내어 18세기를 전후해서 유일무이한 치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정자각의 배치에서도 정조는 봉분이 놓인 자리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이전의 다른 능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을 구상하였다. 즉, 정자각은 봉분의 오른쪽에 치우쳐 배치함으로써 봉분에서 안산이 시각적으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배치는 수라간과 수복방의 배치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는 관례를 르지 않고 지형여건에 맞추어 두 건물울 오른쪽에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을 직접 결정하였다.

현릉원에 나타난 석물조성이나 건물 배치의 특징은 모두 정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

31) 다산 정약용이 쓴 「자찬묘지명」에 의하면 정조가 『고급도서집성』의 『기기도설』을 내려주어 인증법과 기중법을 강구하도록 하여 다산이 「기중가도설」을 지어 바쳤다는 대목을 볼 수 있다.(『다산시문집』 권16).

32) 『홍재전서』 권169 「일득록15」.

33) 『홍재전서』 권168 「일득록8」.

34) 병풍석이나 와첨상석은 1800년 정조 산릉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0세기에 와서 홍릉과 유릉을 조성할 때는 병풍석이 재현되었는데 이것은 황제릉의 격식에 맞추어 조성한 것이어서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졌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17세기 중반 이후의 산릉공역에서 이처럼 국왕이 직접 산릉의 입지선정이나 석물조성에 직접 간여하여 계획을 주도한 경우는 달리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산릉공역은 일을 맡은 도감이 주도하고 국왕은 최종적인 승인만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정조 자신도 현릉원 이전에 있었던 세 건의 산릉공역에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현릉원 천장에 와서 적극적인 주도를 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산릉공역에서도 예외적인 일이었다.

현릉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의 배경에는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을 조선최고로 꾸미려는 정조의 효성이 무엇보다 컸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조의 학문적 기질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정자각이나 수라간, 수복방의 배치를 현지 여건에 맞추어 결정한 것도 선대 능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학문적 자신감의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조는 고전 경전을 비롯한 많은 서적을 탐독하면서 제왕으로써 필요한 학문적 기반을 닦았지만 다리를 놓거나 성곽을 쌓는 것과 같은 공역에도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조는 제왕이 기예나 공역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경계하였다. 현릉원에서 가졌던 풍수나 능원에 대한 관심도 부친의 묘소를 잘 꾸미려는 일시적인 일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현릉원에서 보여주었던 정조의 원침계획이나 공역에 대한 관심은 현릉원 이후에 다른 능원에 영향을 주거나 기술적인 발전에 기여를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것은 왕릉조성이나 축성공역과 같은 공역에서 국왕 정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참고 문헌>

1. 顯隆園園所都監儀軌
2. 顯隆園瞻錄
3. 獻慶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
4. 弘齋全書
5. 日省錄
6. 殷光俊, 朝鮮王陵 石物誌, 상, 민속원 1985
7. 이영, 조선시대 왕릉능역의 건축과 배치형식,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8.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수원성, 도서출판 발언, 1996
9. 이창환,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9
10. 김지영, 1789년 현릉원천원과 현릉원원소도감의궤, 현릉원원소도감의궤 역주, 경기도박물관, 2006
11.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King Jeongjo's Role in Selecting the Site and Planning the Tomb of Hyeonryungwon

Kim, Dong-uk

(Prof. Kyonggi University)

Woo, Hee-joong

(Graduate Student, Kyonggi University)

Abstract

Hyeunryungwon is a tomb for Crown Prince Sado, who was the father of King Jeongjo, the twenty second king of Joseon dynasty. The tomb had been originally in the Eastern part of Seoul, but was relocated in 1789 to the downtown Suwon, which was renowned as a good tomb site among the Royal family at that time. King Jeongjo looked through the records from the previous generations for the ideal location and direction for the tomb. He personally studied Feng Shui theory and designated its location and direction. He ordered for lavish decorations for the stone adornments of the surroundings of the grave mound, which was against the regulations of the royal family. He found his reasons in the precedent that allowed sumptuous decoration. However, for the arrangements of Jeongjagahk(T shaped building) and other attached facilities, he made unusual choice that other precedent royal tombs did not have. Instead of following the conventions that Jeongjagahk should be facing south of a grave mound, he put it on the right side of grave mound. Also conventionally, Subokbang(a place where guards can stay) and Suragan(a kitchen that prepares food for sacrificial rites) should be facing symmetrically, but they too, were on the same side with Jeongjagahk. It was a measurement that the grave mound of Hyeunryungwon can have a full view without being obstructed by other facilities and it was also personally ordered by King Jeongjo.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Hyeunryuwon was motivated by King Jeongjo's filial affection, and his academic pursuit of precedent royal tombs initiated the unconventional and innovative challenges.

Keywords : Fengsui, Byeongpung-seok, T-shaped building, Suragan, Subokbang
